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6호 [루계 제2177호]

주제 101

(2012). 6

23

토요일

음력 5. 4

6. 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창전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평양에 또 하나의 새 거리가 홀륭히 일떠섰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으로 대동강기슭을 따라 형성된 창전거리에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 사상을 구현한 인민극장과 초고층, 고층살림집들, 각종 봉사시설들이 희한하게 솟아올랐으며 조형화, 예술화, 공원화가 홀륭히 실현되었다.

인민의 리상이 꽂피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면모가 집대성되고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인민관, 미래관으로 일관된 창전거리의 새 모습은 순결무구한 김정일에 국주 의 고귀한 정성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친 수도건설의 옹대한 설계도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드세 찬 총공격전을 벌려 만수대지구에 건축 및 거리형성의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게 갖춘 거리를 단 1년 만에 일떠세운 새로운 평양속도, 건설사에 일찌기 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창전거리의 완공은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현명한 령도와 애국현심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이며 당파 수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일扦단심이 넣은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천지변이다.

위대한 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따라 새 세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홀륭히 일떠선 창전거리 준공식이 20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준공식장에 도서져 있다.

준공식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강성국가건설원을 빛나게 실현하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목숨으로 수습하자!》, 《수도 평양을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도시로 더 잘 꾸리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다.

준공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준공식에서는 창전거리 건설에

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인민군장병들과 수도건설자들, 돌격대원들과 지원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공동축하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최영렬 내각총리가 준공식을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 전군, 전민이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장엄한 대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력사적 시기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홀륭히 일떠선 창전거리 준공식을 뜻깊게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공동축하문을 받아안은 지금 어버이장군님께 오늘의 이 친지개벽을 보여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겠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넘쳐있다.

우리 인민이 세상에 부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온갖 심혈과 헌신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창전거리 건설을 봄소 말하기 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구체적인 가르침침을 주시었으며 강력한 설계집단과 건설력량을 꾸려주시고 건설服务业와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창전거리 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지난 5월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가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봄소 초고층 건물의 45층에 까지 오르시고 여러 살림집들의 내부를 돌아보시며 건설자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해주시었으며 인민들이 리용할 의자에도 앉아보시고 건축에서 선 편리성, 후 미 학생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대해 가르쳐주시면서 수도 평양을 인민들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세계적인 도시로 더 잘 꾸리기 위한 강

령적인 파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보살펴심은 창전거리 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한 근본원천이었다.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과 수도건설자들, 돌격대원들과 지원자들은 창전거리를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울 비상한 각오를 안고 건설역사에 일찌기 없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를 들고 당의 옹대한 수도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에 퍼와 땅을 아낌없이 바쳐 세계적인 건축물을 보란듯이 일떠세움으로써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조국에와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한 창전거리 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은 강성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 것이다.

참으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이 건설된 창전거리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운 우리 당의 위대한 인민사

랑의 기념비이며 김정일에 국주의 고귀한 결실이다.

연설자는 전체 건설자들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경고의 마음을 담아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영원 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천만군민을 한 품에 안아 보살피시며 최후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연설자는 전체 건설자들과 수도시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리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위하여 암자하고 말하였다.

그는 수도건설자들과 일군들이 혁명의 수도 평양을 웅장화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여 선군시대의 평양번영기를 더욱 빛내일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군인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

일군들은 창전거리 건설의 나날에 빌휘한 불굴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면한 살림집 건설과 종심 거리개간 공사를 제기일에 끝내기 위한 돌격전을 계속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할 것이다.

창전거리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봉사시설 운영을 맡은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건축물들과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운영 사업을 정상화하고 봉사사업을 높이 위한 경쟁을 힘 있게 벌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수도시민들에게 언제나 뜨겁게 안겨지도록 하여야 한다.

연설자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모두가 최후승리를 위한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틱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내각사무국 부국장 남인백, 조선인민군 장령 리원희, 대외건설지도국 부국장 신제일이 토론했다.

토론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지구에 창전거리를 번듯하게 일떠세우고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공동축하문을 받아안은 전체 건설자들은 절세위인들에게 대한 나합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에 휩싸여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조국에와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가슴깊이 새겨안았기에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과 수도건설자들, 돌격대원들, 지원자들은 창전거리 건설 전투의 날짜와 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올里 있다고 강조하였다.

창전거리 건설의 하루하루는 당시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선군조선의 담력과 배짱을 힘 있게 표시한 영웅적투쟁의 날이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지혜와 열정을 함께 살림집을 한층 한층 쌓아올렸으며 봉사시설들과 지대정리공사를 힘 있게 내밀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판들은 공동축하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판철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높이 드신 불멸의 애국강령, 김정일에 국주의 기치 따라 혁명의 수도 평양을 절세위인들의 구상이 실현되고 인민의 행복이 꽂펴나는 세계적인 도시로 옹장화려하게 꾸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창전거리 건설에서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 최첨단돌파전을 힘 있게 벌여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대상건설들을 불이 번져나가게 해제함으로써 선군조선의 기상을 계속 펼쳐나갈테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토론판들은 우리 인민들이 아름답게 변모된 사회주의 땅원에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빙들어 평양을 강성조선의 수도답게 홀륭히 전면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맡은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준공식은 《우리는 맹세 한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준공식은 끝난 다음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이 완공된 살림집들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조국 소식

원산 유희장이 새로 건설된다

원산시의 풍치수려한 해변가에 유희장이 새로 건설된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에 떠받려 꾸려지는 유희장에는 우주비행선, 2종회전반, 회전그네, 힘마치기 등 현대적인 유희시설들이 갖추어지게 된다.

전자오락장, 수영관, 청룡히 꾸리기 위하여 한결 같

이 떨쳐나섰다.

이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공사시작부터 드세 찬 공격전을 벌리고 있다.

건설자들의 애국적헌신과 창조적열의에 의하여 유희장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본사기자

량으로 점들도 특색있게 건설되어 이곳을 찾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웃음과 랑만속에 즐거운 한때를 보내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강원도의 인민들은 유희장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홀

전쟁 습격강화 등으로 평화에 출몰 도전해 왔다. 지난 남조선에 1000여기의 미국제 핵무기들을 끌어들이고 겨레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드리워왔다.

특히 천미 굴종이 풀수에 배인 남조선의 려명박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앉은 이후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북침 전쟁준비를 계단식으로 확대해온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때로부터 60여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조선반도는 아직도 전쟁에 끌려나지 않은 불안정한 정전 상태에 있고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공화국은 지금까지 조선반도의 평화와 겨레의 안전보장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 전쟁의 화근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고 정전협정을 합의한 국제적인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며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벌려놓지 말테 대한 제안 등 수많은 평화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이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공명 정대한 평화제안들을 거부하고 남조선에서의 무력증강과

기 위한 미싸일과 직승기, 무인정찰기, 정밀유도화산탄을 비롯한 첨단무기들과 전쟁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하고 있으며 상전에게 빌붙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려고 급급하고 있다.

이것은 제2의 조선전쟁 발발을 노린 위험천만한 군사적방동이다.

앞에 진전비와 같이 미국은 국심한 경제공황과 재무위기로 허덕이고 있다. 여기에 서의 출로를 전쟁에서 찾으려 하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해외군사작전의 중심부대로 설정하고 이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무력증강책 등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북의 핵과 미싸일 위협을 운운하며 『남조선』과 『북의 핵과 미싸일 위협』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리고 남조선은 미군과 남조선보수당국이 일본과 손잡고 동족을 해칠 군사적 결속동을 벌리는 것은 극악한 매국노, 희생의 전쟁광신자가 아니고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소동을 당장 견어치워야 한다. 호전세력들이 자기의 신성한 령도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면 무자비한 정벌을 가하려는 것은 공화국의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도발자들은 공화국의 경고를 무시해 대하지 말고 전쟁열에 둘둘 머리를 석혀야 한다.

적으로 뛰어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해아될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백년숙적이 있다. 밤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당국이 일본과 손잡고 동족을 해칠 군사적 결속동을 벌리는 것은 극악한 매국노, 희생의 전쟁광신자가 아니고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것이다.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 조작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엄중한 사태는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악화시키는 시발점은 어디에 있으며 장본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적자라하게 깨닫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소동을 당장 견어치워야 한다. 호전세력들이 자기의 신성한 령도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면 무자비한 정벌을 가하려는 것은 공화국의 경고를 무시해 대하지 말고 전쟁열에 둘둘 머리를 석혀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호



질 좋은 수지연필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 평양수지연필공장에서 -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제재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비망록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 압살책동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

그들은 정의와 평화, 자주적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노력을 터무니없이 중상모독하면서 『제재』니 뛰니 하고 그 누구를 압박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더우기 가소로운 것은 피폐폐당이 광란적인 제재책동의 앞장에 분별없이 날뛰고 있는 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추종세력의 제재책동의 진상과 악랄성, 비렬성을 만천하에 밝기놓고 규탄하기 위해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 게 있어서 제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탄압, 치배와 간섭의 중요한 수단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는 반제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나라들을 압박하고 고립, 절식시키기 위해 제재책동에 매달려 왔다.

동방일각에 정의와 평화, 자주의 강한 성세로 탄생한 우리 공화국은 그 주되는 대상으로 되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제재책동은 악랄성과 비렬성, 집요성과 지속성이 있어서 동서고금에 찾아볼수 없는 것 이었다.

우리의 강도를 분별시키고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제는 그 첫날부터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요란 기에 압살해보려고 비렬한 제재책동에 매달려 왔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도적의 매를 드는 격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

자』로 규정하는 결의를 강압통과시켰다. 그리고 6월 28일에는 『수출통제법』을 통해 우리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였다.

같은 해 12월 17일에는 우리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국』으로 선포하고 이른바 『적성국무법』으로 자산동결, 무역과 투자, 금융거래, 운송의 종지 등 모든 경제판제단절로 나갔다.

1951년에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10배의 고가율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무역협정장법』이라는 것을 들고나왔다.

1960년 대에 들어와 미국은 『대외원조법』이라는 것을 내들고 정부는 물론 기업, 은행들이 우리와 거래하는 것을 전면 봉쇄하였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무역법』과 『대외경제비상조치법』, 『수출입은행법』 등으로 무역, 투자, 보험, 신용, 자판, 임대를 비롯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였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추종세력의 고립, 압살과 봉쇄책동은 1987년 피폐들이 조직한 남조선혁명기록사관을 계기로 한층 강화되었다.

미국은 1988년 1월 20일 우리에게 『테로지원국』이라는 터무니없는 감투를 써우고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 『국제금융기관법』 등 온갖 제재법을 다 동원하였다.

1990년대에는 『핵개발』이니 뛰니 하며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축하여 우리에 대한 날강도적인 특별사찰문제를 들고나와 그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까지 상정시켜 제재노동을 벌리였다.

미국은 1994년 10월 제네바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된 경수로 발전소의 건설을 질질 끌다가 끝내 중단해버림으로써 우리의 자립적 핵동력 공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미국은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조기지』니 뛰니 하면서 제네바조미기본합의문을 전면 백지화하고 제재책동에 한층 광분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의 자위적인 혁신과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터무니없이 거두고면서 2006년과 2009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강도적인 반공화국제재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조작하여 국제적 판도에서 새로운 제재책동을 강행하는데 나섰다.

올해 4월 미국과 추종세력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행성-3』호 발사를 또다시 걸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평화적 위성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하도록 조작하고 추구제재니 뛰니 하며 반공화국제재책동을 벌렸다.

그들은 국제적인 제재놀음이 잘 먹어들어 가지 않게 되자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산하에 우리와 관련한 제재위원회를 내오고 미국 사회에 정기적으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며 평화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과 은행들, 개인들까지 다른 나라와 경제거래를 할 수 없게 비렬하게 가로막았다.

최근에만도 미국은 일본 등을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의 기업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추가제재를 선포하는 놀음을 벌렸다.

이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렬하게 제재책동에 매달리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기본적인 것만 보아도 『국제금융기관법』, 『수출입은행법』, 『북위협감소법』, 『국제종교자유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들은 서로 겹쳐져 보완관계에 있으며 설사 어느 하나를 해제한다고 해도 무의미하다.

실례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수출관리법』 적용을 철회한다면 그것을 『수출입은행법』으로 대신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미국은 2008년 『핵포기』를 전제로 우리에게 20년동안 억지로 쇄워놓았던 『테로지원국』 감투를 벗겼다고 하지만 『테로지원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수출관리법』과 『수출입은행법』, 『무기수출통제법』, 『대외원조법』 등은 『사회주의 국가』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그리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이라는 구실 밑에 가하고 있는 제재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므로 그것은 빙말뿐이다.

외신들도 미국이 북에 대한 『테로지원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해도 또 다른 제재 조항들이 있기에 문제에 실지 해제되는 제재 범위는 없는 것이나 같다고 평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이 2009년 미싸일생산에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여 우리에 대한 바나디움원료수출을 차단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실례이다.

지금 이곳에 가로막고 있는 물자와 기술은 수천 종에 달하고 있다.

지어 화학공업에 필요한 설비들도 2종용도로 리용될 수 있다는 구실 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화장품원료까지 화학무기에 쓰일

입은 행법』, 『북위협감소법』, 『국제종교자유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들은 서로 겹쳐져 보완관계에 있으며 설사 어느 하나를 해제한다고 해도 무의미하다.

실례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수출관리법』 적용을 철회한다면 그것을 『수출입은행법』으로 대신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미국은 2008년 『핵포기』를 전제로 우리에게 20년동안 억지로 쇄워놓았던 『테로지원국』 감투를 벗겼다고 하지만 『테로지원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수출관리법』과 『수출입은행법』, 『무기수출통제법』, 『대외원조법』 등은 『사회주의 국가』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라는 구실 밑에 가하고 있는 제재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므로 그것은 빙말뿐이다.

외신들도 미국이 북에 대한 『테로지원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해도 또 다른 제재 조항들이 있기에 문제에 실지 해제되는 제재 범위는 없는 것이나 같다고 평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이 2009년 미싸일생산에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여 우리에 대한 바나디움원료수출을 차단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실례이다.

지금 이곳에 가로막고 있는 물자와 기술은 수천 종에 달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

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이 2009년 미싸일생산에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여 우리에 대한 바나디움원료수출을 차단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실례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이 2009년 미싸일생산에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여 우리에 대한 바나디움원료수출을 차단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실례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이 2009년 미싸일생산에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여 우리에 대한 바나디움원료수출을 차단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실례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이 2009년 미싸일생산에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여 우리에 대한 바나디움원료수출을 차단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실례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

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2종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세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종3종으로 가하고 있다.

인민의 리상이 꽂펴나는 거리 – 창전거리의 새 모습



국제태권도련맹 전 총재 최홍희선생서거 10돐 추모행사

주 모 행 사 진 행

국제태권도련맹 전 총재 최홍희선생서거 10돐 추모행사가 15일 애국렬사당에서 진행되었다.

추모행사는 장웅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국제태권도련맹 전 총재의 부인 한춘희와 일행, 국제태권도련맹 전 총재의 묘에 진정하고 선생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이어 국제태권도련맹 전

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태권도사, 선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태권도위원회, 국제태권도련맹, 해외동포사업국,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개별 인사들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을 최홍희선생의 묘에 진정하고 선생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본사기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 예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일행은 또한 태권도성지중심을 참관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 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 깊게

지식보급실, 훈련관 등을 돌아보았다.

이밖에 일행은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을 비롯한 여러 곳을 참관하였으며 태권도전당에서 우리 태권도사범들의 시범출연을 관람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중근에 국렬사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할빈)역에서 조선침략의 원흉 이도 히로부미(이등박문)를 처단함으로써 조선민족은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주정신이 강한 민족이며 국권회복을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협사였다.

안중근렬사의 의거가 있은 때로부터 한세기가 지났다.

허나 그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남포시 와우도구역에는 안중근선생이 교편을 잡았던 학교(오늘의 남흥중학교)가 있다. 이 학교에 오늘도 력히 남아있는 협사의 자취는 차라나는 후대들에게 애국의 넋을 심어주고 있다.

남흥중학교 교장 송정실은 우리에게 애국렬사의 넋이 깃든 학교의 연혁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원래 해주에서 살고 있던 안중근은 나라의 흥망은 청년들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면서 1906년 가족과 함께 남포로 이사와서 집재산을 통털어 학교를 세웠다고 한

애국렬사의 넋이 깃든 교정

– 남포시 와우도구역 남흥중학교 –

다. 그리고 학교이름도 청년들이 일제를 끌없이 미워하고 반일사상과 풍부한 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삼흥학교라고 달았다고 한다.

《일제는 안중근선생이 세웠던 삼흥학교를 허물고 애마도정신을 우리 조선학생들에게 주입시킬 목적으로 1937년 11월 풍정초등학교라는 것을 내왔습니다. 그때부터 운동회 날이나 등산가는 날이면 꾹꾹 비가 오곤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제가 안중근선생이 세웠던 학교를 허물고 풍정초등학교를 건설하는 과정에 구령이가 나왔는데 삼으로 내리쳐서 죽였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안중근선생의 애국충정을 무참히 짓밟았기 때문에 일어난 하늘의 조화라는 말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때 일제는 풍정초등학교를 세우면서 학교로 들어가는 다리에 〈애마도하시〉라는 일본글자를 새겨 돌문주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 돌문주는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일제의 민

미술가인 인민술가이며 로령영웅인 로익화선생도, 가곡 〈예브케니 오네진〉에서 주인공을 훌륭히 수행하여 인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합선희배우도 모두 남흥중학교 졸업생들이랍니다.』

김일성상수상자이며 인민체육인 한필화도 이 학교 졸업생이다. 북파 남, 해외에 널리 알려진 체육선수였던 그는 학교선생님들로부터 안중근렬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라났다고 한다.

송정질교장은 남흥중학교에서 지난 기간 안중근렬사가 지녔던 애국의 넋을 이은 8명의 영웅들과 수많은 예술인재들이 배출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민수대 창작사의 이름이 미술가인 인민술가이며 로령영웅인 로익화선생도, 가곡 〈예브케니 오네진〉에서 주인공을 훌륭히 수행하여 인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합선희배우도 모두 남흥중학교 졸업생들이랍니다.』

김일성상수상자이며 인민체육인 한필화도 이 학교 졸업생이다. 북파 남, 해외에 널리 알려진 체육선수였던 그는 학교선생님들로부터 안중근렬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라났다고 한다.

애국렬사의 넋은 끝이 없을 상신했다.

본사기자 박원평



외국어학습실에서



금강산수정봉에서 본 온정리지구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울긋불긋한 원색을 좋아하지 않았다.

우리 민족의 정서에 굳어진 색은 간색 다시 말하여 두 가지 이상의 색이 혼합된 은근하고 부드러운 단색이다.

우리 민족은 겸손과 소박함을 제일로 여겨오고 자신의 행복보다 가정과 마을, 집단을 더 위하는 것을 친품으로 삼아왔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울긋불긋한 색은 사치스러운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는 곧 개인의 영달을 펴자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사치스러운 색은 인간의 길흉화복을 다스리는 신명(하늘과 땅의 힘)의 색 갈로 전해져 못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멀리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색은 신명을 대신하는 왕이나 무당들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왔으며 단청도 왕궁이나 절들에만 입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일반서민들의 집에는

우리 민족의 색정서

색이었으므로 구태여 일상생활 속에 원색을 끌어들일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과도 관련된다.

고려자기의 우수성의 하나가 그 은근한 색상에 있듯이 우리 민족의 공예품, 미술품들은 모두 깨끗하고 은근한 색상 때문에 더 빛을 뿐인다.

옛 문인들의 시조나 그림들에 안개와 달, 구름과 같은 자연현상을 담은 것은 있던 대양을 형상화한 것은 극히 적은데 이것 역시 은근한 것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정

절대금물로 되어 있었다.

시집갈 때 신부들이 원색옷을 입거나 돌생일이나 설날에 아이들에게 색동옷을 입히는 것은 한번밖에 차례지지 않는 즐거운 날에 그들을 마음껏 기쁘게 해주려는 부모들의 욕망으로부터 나왔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기와 접역시 이러한 색조화의 대표적 실례이다.

우리의 전통적 기와 접은 곡선미를 그리며 뻗어나온 처마가 있어 그늘을 보장해 주는 완종작용을 한다.

조선 종이로 바른 장지면역시 대양빛의 직사광을

차단시켜 은근한 빛으로 방안을 조화시킨다.

그러나 유럽의 집들은 근본상 우리식의 처마와 같은 것이 없어 태양빛을 그대로 방안에 끌어들이며 창문도 빛을 그대로 받아들여 밝게 하든가 아니면 창가림으로 어둡게 한다.

색상에 반영된 이러한 민족적 정서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의 고상함과 슬기로움을 다시 한 번 보여 준다.

본사기자

색이었으므로 구태여 일상생활 속에 원색을 끌어들일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과도 관련된다.

고려자기의 우수성의 하나가 그 은근한 색상에 있듯이 우리 민족의 공예품, 미술품들은 모두 깨끗하고 은근한 색상 때문에 더 빛을 뿐인다.

옛 문인들의 시조나 그림들에 안개와 달, 구름과 같은 자연현상을 담은 것은 있던 대양을 형상화한 것은 극히 적은데 이것 역시 은근한 것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정

우리 말 상식

《그러나》와 《그런데》

둘 다 앞의 문장에 맞세워서 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이 음말이다.

개별뜻을 보면 《그러나》는 앞의 문장에서 서술된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부정하면서도 다른 각도에서 서술할 때 쓰인다.

례: 우리는 지금 양각도축구경기장에 가려고 한다. 그런데 아직 한 동무가 도착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

례: 우리는 매일 동물원에 간다. 그러나 비가 오면 가지 않기로 하였다.

어느 고을에 감사가 내려온다고 하여 그 행차가 지나가는 길을 고치게 되었다.

제대로 하자면 부역을 불여야겠지만 날자가 급한지라 판가에서는 정수동의 지혜와 수단을 밟고 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일을 맡겼다.

그런데 정수동은 일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좋아하는 술만 마시였다.

마침내 감사의 행차날이 왔다.

사인교를 타고 지나가던 감사가 길이 나쁘다고 호통을 쳤다. 결국 정수동이 감사앞에까지 불리워오게 되었다.

『네가 정수동이냐?』

『네-』

『어찌하여 너는 나라일을 맡았으면 해내야지 국고만 죽냈느냐?』

『그럴만 한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가?』

정수동은 감사 앞에 서 물러나 길 한 가운데 뽑아버리지 않았는데 감사가 지나가는데 왜 나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요?』

『그렇지? 그 말이 틀림없지?』

이 말을 듣고 있던 감사가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공사를 하지 않은 정수동에 제 죄를 주기는 쉬웠다. 그러나 그 뒤의 일이 캥기였다.』

정수동의 말대로 임금은 드문히 이 길로 사냥을 하거나 군주하였다. 그런데 임금이 지나갈 때도 뽑지 않은 돌을 자기가 뽑으라고 하면 불경죄(임금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은 무례한 죄)에 걸려 목이 달아나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는 황황히 가버리고 말았다.

본사기자

조선족답 『꿩 구워먹은 자리』

* 어떤 일을 감싸같이 해 치워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는 경우를 두고 이르

* 일이 진행된 뒤 아무런 결과가 없음을 이르는 말.

술의 종류가 다양한 것만큼 술잔의 크기와 모양도 매우 각이 하다고 한다.

술잔의 크기와 모양은 마시는 술의 알콜도수, 맛, 향에 따라 달라진다.

◎ 술잔의 크기 술잔의 크기는 알콜농도와도 반비례 한다.

일반적으로 알콜농도가 40%이상인 독한 술을 담는 잔은 아주 작지만 소주잔은 독한 술잔의 2배 만큼 크다.

그리고 맥주잔이나 포도주잔은 그보다도 더 크며 막걸리는 애에 사발로 마신다.

모든 잔의 크기는 한잔에 알콜량이 비슷하게 담도록 만들어진다.

가득 채운 웨스키 한잔(35ml, 도수 40%)에는 알콜이 14ml, 소주 한잔(60ml, 도수 20%)에는 알콜이 12ml, 맥주잔(225ml, 도수 4.5%)에는 알콜이 10ml가 담긴다.

죽 잔이 크든 작든 술 한

잔에는 10~14ml의 알콜만 들어간다.

◎ 술잔의 모양 술잔의 모양은 술의 맛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술잔은 술의 맛을 최대로 느낄 수 있게 만든다.

맥주잔은 정한 맛을 내는 탄산이 거품속에서 유지되도록 웃쪽보다 아래쪽을 즐겁게 만든다.

소주잔은 마시기 좋게 몸체를 직선형태로 만든다.

포도주잔은 포도주종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입구를 넓게 만든다.

그것은 공기로 출시켜 포도껍질에서 우러나온 탄닌의 텁텁함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삼광주잔은 시각효과를 높이고 찬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튜립모양으로 긴 몸체와 손잡이가 있게 만든다.

본사기자

기례기 (1)

글 김승기, 그림 김윤일

에 서서 가을하늘 기러기떼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랴?』

인생의 몇십년을 감忧이라

는 사람 못살 곳에서 보내며

끌까지 지조를 지켜온 비전

향장기수들이 몇 해전에는 북

으로 송환되어갔다. 바로 그

때 남족의 부당한 처사로 하여

북으로 가지 못한 비전

향장기수—그가 바로 이로

인이다.

『로인님, 바람새가 차고

사나운데 이렇게 나와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김향순이 걱정하며 다가서

자 정윤기는 조용히 눈길을 돌리었다.

『향장기수?』

정윤기는 그려고 있었다.

먹을 찍으며 사색하고

붓을 들어서는 혼신의 힘을 모아 꾹 눌렀다가

가볍게 떨 때마다 나무의

역센 줄기와 푸른 잎새가 금

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대는 누군가?』

『저는 〈불교인협회〉에

서 소임을 맡아보는 김향순

이라고 합니다.』

『어인 일로 날 찾아왔소?』

『선생님을 꼭 뵈우라고

해서... 아니 제가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거짓은 욕망이 부추기는

인간의 어리석음이지.』

김향순은 하마트면 늙은이

앞에서 자기의 속을 다털어놓을 했다.

정윤기는 등은 굽었어도 고개를 높이 쳐들고 멀리 암을 보며 걸었다. 그의 눈빛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다. 비분에 띠는 것 같을까하면 너그럽게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침통한 사색을 하는 것 같은가 하면 예리한 창을 험기로 번쩍거리기도 했다.

『로인님, 내려가십시오.』

『그러세.』

김향순은 로인의 한팔을

끼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전 말이예요. 아이참!』

김향순은 미연에 늙은이

보다도 백여년이상 암셨지.

그리고 거기에는 세상만물의 호상관파 변화발전이

암시되었거나 성문화된 흔적도 볼 수 있지.』

김향순은 자기가 우연히

엘아놓은 그 〈신령〉과 함께 걷는 착각까지 들었다.

붓을 들면 서예와 그림을 그려내고 입을 열면 그 어느

명랑높은 대학의 교수도 무색 할만큼 동서고금의 고전들을 막히게 없이 외우며 구술해내는 신통력이 정윤기에 게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옥중살이 36년이 오죽한가?

그전에 배운 것마저도 중발되어 뇌수세포가 미이라처럼 뭘터인데 이로인은 놀랄 만큼 그 반대다. 로인의 머리속지식의 장서가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김향순은 날이 갈수록 정윤기라는 인간에게 점점 크고 무거워지는 존재,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임을 느끼였다.



나 내 심중에서 뭔가 찾으려고 애쓴단 말일세. 그게 뭔지 보살님도 모르는데 나라고 어떻게 알겠나?』

『말씀드리지요. 로인님도... 로인님』

환경

환경